

# 도내 모든 학생에 30만원... 경북교육청, 선거용 퍼주기 논란

도내 학생 29만5000여명에 지급 '선거 출마예상자의 퍼주기' 지적 교육청 "예산 절감 통해 마련"

경북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30만원을 지급기로 해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6일 경북도의회와 협력해 도내 모든 학생에게 '온학교 교육 회복학습 지원' 명목으로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각종·방송통신 학교 학생 29만5000여명이다.

총예산은 885억원으로 1인당 30만원씩 9월 중 스쿨뱅킹으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 배경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지난 2일 경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고우현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30만원을 지급기로 해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교육 회복을 통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임 당사자들은 모두 다음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이 때문에 임종식 교육감이 '선거를 앞둔 시기 퍼주기'라는 비난을 혼자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도의회 간부들과 모임을 가져 '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 비난을 '지역을 위한 결단', 이들 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치적'으로 포장하는 1석2조를 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은 이 지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온라인 수업에 따른 사회적 결여,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교육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과 가정에서의 자녀지도 부담 등 학부모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며 "지난해 도의회에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예산은 이를 위해 각종 사업비 절감, 연수·체합 관련 불요불급한 사업 취소 등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경북도의회는 추경심

사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등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경북교육청과 도의회 간부들이 이를 무릅쓰고 치적을 남기고자 밀어부쳤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내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인사는 "이런 퍼주기 지원은 학생들에게 의타심을 키운다. 교육적으로 부작용이 더 크다"며 "도민에게 결국 세금으로 돌아오는 선심성 행태를 현 정부 이상으로 앞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임종식 교육감은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과 학부모의 교육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metroseoul.co.kr

## 광주-전남, '제주 해저터널' 찬반의견 팽팽

케이블카 반대 광주시민 51.4% 해저터널 건설, 찬성 46.8%

전남-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광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0% 이상이었다.

6일 무등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지난 8월31일부터 1일까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남-제주 간 KTX 해저터널 건설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6.8%, '반대'한다는 응답은 41.7%로 조사됐다.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사·도민 중 '반대'하는 비율은 57.0%(찬성 36.3%)로 과반을 차지했다. 광주에서는 찬성 의견 비율이 44.3%로 다소 높아졌으나 반대 의견비



광주 북구 금곡동 무등산. /뉴스시

율은 여전히 51.4%로 과반이었다.

또 광주지역 전역을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데 대한 해제 여부에 대해 '집값 추가 상승 우려가 있으니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36.7%로 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동결 우려가 있으니 광주에서 조정대상 지역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

는 의견은 15.4%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광주·전남지역 만 18세 이상 500명(광주 216·전남 284)을 대상으로 무선가상번호(50%)·유선(5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으며 응답률은 0.8%(유선 5.3%·무선 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 “추석 성묘시 벌 쏘임 주의하세요”

벌집 건드렸을 때 신속히 벗어나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시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 당부했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벌쏘임 사고는 64명으로 8월과 9월에만 23명이 발생했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47명의 벌쏘임 사고가 발생했다.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초작업을 할 때는 풀숲이나 무덤가 주변 땅속에 벌이 있는지 살피고, 만약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옆드리지 말고 20m 이상 신속히 벗어나야 한다.



벌집 제거하는 광주 소방대원

벌에 쏘였을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벌침을 제거 후 물로 씻거나 얼음찜질을 하고, 호흡곤란과 근육경련 등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경우 119에서 신고해 병원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광주=김태수 기자

### 경북경찰청

#### 관급공사 미리 관련 업자 구속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예천군청 공무원 B씨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예천군이 침수피해 예방사업 관련 계약 과정에 개입해 담당 공무원을 알선한 후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예천군청 재난 관련 부서 및 공무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자재납품 수의계약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김태우 기자

## 천관산 문학숲, 주민단체 참여숲 선정

장흥군, 사업비 3억 공모

장흥군은 지난 7월 대덕읍 천관산사랑봉사회(회장 김석주)의 공모 신청 접수를 받아 전라남도로부터 현장·최종 심의를 거쳐 2022년 주민단체 참여숲에 사업비 3억 원으로 '대덕읍 천관산문학숲'이 공모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주민단체 참여숲은 5인 이상 주민 모임 및 비영리 단체가 직접 제안하고 숲을 조성·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숲 조성을 통해 지

역 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천관산사랑봉사회 김석주 회장은 "대덕읍 천관산 문학숲이 공모에 선정되어 기쁘다"며 "추후 회원들과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사업 시행 전 주민 의견 수렴 및 道 숲속의 전남 실무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아름다운 명품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남=김일환 기자 1234kim@

## 안동시, 가을철 임산물 절취행위 집중단속

단속반 편성... 대대적 단속

안동시는 가을철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히 임산물 불법채취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산림과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읍면동 직원으로 이루어진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9월 12일

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단속반원들은 임산물 주요 생산지 등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 함평군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개선 추진

월야면 복지기동대 재능기부

함평군 월야면 복지기동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출동한다.

복지기동대원들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주거 취약계층 어르신 5가구를 대상으로 청소부터 도배·장판 교체, 수도 배관 작업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전남=김태수 기자

월야면 복지기동대는 민 관협력체로 20여명의 회원들이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집수리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인상 월야면장은 "복지기동대원들의 적극적인 재능봉사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덕분에 어르신들이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더 따뜻이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